

## 다은아 안녕

오늘도 마당의 닭이 운다. 나는 항상 그러했듯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빨래를 하고 아침식사 준비를 했다. 그런데 아침을 먹고 밭에 나가려 가는데 조용하고 고요했던 평소와 달리 주변은 승용차, 홍보용 트럭 등이 북적북적거렸다. 시끄러웠다. 나는 말했다. “이게다 무어냐” 그리고 지나가던 지역주민이 말하기를 “정부에서 우리지역 사람들 취업시켜주려고 트럭을 보냈나 봐요.” 나는 이말을 듣고 ‘나도 이제 돈을 벌수 있는건가’라고 생각하며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취업시켜주겠다는 것을 평계로 또 나를 속이고 끌고 가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게다가 분노가 들끓었다.

경술년 8월, 평화롭던 우리 마을에 군인처럼 생기고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왔다. 그리고는 우리마을 관청계시판에 무언가를 붙이고는 입을 열었다.

“我々は君たちの国を占領した。(우리는 너희들의 나라를 점령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채 친구들과 고무줄뛰기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다. 나는 친구들과 헤어졌다. 그리고 집으로 도착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었다. 나는 뒷문쪽으로도 가보았지만 열리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다. 부모님도 어디론가 가버리신 모양이었다. 동생들도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인 민서네 집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민서네 집으로 향하는데 주변이 평소와 다르게 어수선했다. 그렇게 계속 걷다가 민서를 만났다. 나는 민서에게 나의 황당한 스토리를 말했다. 하지만 민서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은이였다. “애들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일본으로 끌려가셨대!” 라며 큰소리로 우리에게 말했다. 나와 민서는 당황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전에 보았던 군인이었다. 우리는 겁이 났다. 군인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사용하며 우리를 끌고 갔다. 우리는 멀고 먼곳으로 배를 타고 갔다. 마침내 우리는 도착했다. 도착한 곳은 軍艦図(군함도)라는 곳이었다. 들려오는 말소리, 사람들의 옷차림, 향기 등 많은 것이 익숙한 곳이기도 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처럼 끌려왔나봐.”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힘들을 겪었다. 그렇게 우리는 거의 일본인들의 노예가 된 듯 힘겹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을해년(1935년) 가을 친구인 다은이가 눈을 뜨지 않았다. 나와 민서는 서로 어쩔줄 몰라했다. 다은이가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니 엄청 울기도 했다. “日本のやつら、韓国が独立さえすれば君らの過ちを全世界に知らせるから..(일본놈들, 우리가 독립만 하면 너희들의 잘못을 전세계에 알릴테니..) 覚えていろ(두고보자)” 라며 나와 민서는 서로 다짐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라는 독립을 하게 되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와 민서는 더욱더 친해졌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다. 물론 죽은 다은이에 대해 잊은 건 아니다. 그래서인지 주위에서 일본어가 들리면 다은이와 함께 했던 생각이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헤어져 지냈던 가족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정말 기뻤다. 가족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탓일까.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았다.

일자리를 홍보하러 온 트럭이 갑자기 우리 집앞에 멈춰 섰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나는 남동생과 함께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했다. 남동생은 트럭으로 달려가 지원서 2장을 가

져왔다. 하지만 지원서는 한국어로 써야한다. 한국어가 능숙치 못한 내가 말이다. 나는 한국어를 읽고 말할 수는 있어도 쓰는 것은 부족했다. 어릴 때 제대로 한글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본군인들에게 끌려가 일본어만 배운 탓일까. 그래서 나는 남동생에게 말했다. “누나 지원서 좀 써줄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은 남동생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나의 첫 번째 지원서는 완성되었다.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오늘부터 3일간 우체국의 휴일이라고 했다. 지원서 마감일은 내일인데 말이다. 나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우체국 앞 바닥에 텔썩 주저앉고 말았다. “왜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한참을 주저앉고 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남동생과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서울에 있는 Square State 306에 직접 가기로 했다. 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우리 마을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 버스를 타려면 옵내로 나가야 했다. 결국 나는 버스를 타기위해 도심으로 갔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버스가 중간쯤 가자 멈춘 것이었다. 버스의 엔진이 고장났다고 했다. 시간이 꽤 걸릴거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마감시간이 8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가 처음인 나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버스기사아저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저...기...혹시 Square State 306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아시나요?” 버스기사아저씨는 귀찮은 듯이 대답했다. “아 저 몰라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버스에서 내렸다. 그리고 10걸음 정도를 걷고 난 후 나는 교통표지판을 보았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Square State 306 ⇒300m

나는 이 표지판을 보고 다행이다 싶었고 얼른 최대한 빠르게 걸어갔다. 마침내 Square State 306건물 입구에 도착했다. 정문을 통해 입장장을 하는데 천장은 대략 내 키의 8배쯤 되었고, 내부는 마치 수도원의 예배당처럼 쓸데없이 웅장했다.

입구 한가운데에는 검은 말을 탄 조형물이 있었고, 그 양 옆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손에 꼭쥔 지원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글씨는 빼뚤빼뚤했지만, 이것은 내 삶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적은 종이였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접수번호 있으세요?”

정장 직원 하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번호...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직원의 표정은 귀찮음, 실망,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경멸로 변했다.

그 표정.

군함도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일본 군인의 눈빛과 너무 비슷했다.

“번호 없으면 3층 접수대에서 발급받으세요. 다음!”

나는 순간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모두 나보다 말끔했고, 글씨도 잘 쓰는 사람들이겠지.  
나는 괜히 종이를 주름지게 쥐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  
“저기… 혹시 이름이… 윤하, 맞지?”  
나는 얼어붙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천천히 돌아보자, 그곳에는 민서가 서 있었다.  
군함도에서 함께 끌려가, 함께 울고, 함께 독립을 꿈꾸던 그 아이.  
하지만 지금의 민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단단했고, 날카롭고,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눈빛을 갖고 있었다.  
“나… 너 찾고 있었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Square State 306… 여기가 그냥 취업처가 아니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뭐야?”  
민서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군함도 생존자들을 찾아 기록하고, 증언을 검증하는 곳이야.  
그리고 일본은… 그걸 막으려 하고 있어.”  
순간, 다온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잠들지 못했던 그 밤, 울음을 넘어서 떨렸던 분노,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던 그 말.  
覚えていろ.  
두고 보자.  
나는 종이를 더 힘껏 쥐었다.  
“그럼… 여기 온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민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린 다시…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열렸다.  
우리는 줄을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좁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누구 하나 기침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숨을 들이마시면 과거가 떨어질 것 같아서.  
민서는 벽에 기대며 말했다.  
“여기 기록소, 설불리 들어가면 안 돼.  
우리를 탐색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우린… 그냥 증언하러 온 거잖아.”  
민서는 씹쓸하게 미소 지었다.  
“윤하,  
세상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만,  
‘책임’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바위처럼.  
군함도의 탄 면지처럼.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3층 로비로 나왔다.  
로비에는 접수대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위에는 번호표 발급기, 각종 안내문, 그리고 갑시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스캔하고 있었다.  
번호표 기계 앞에 서서 종이를 뽑았다.  
번호 406.  
나는 표를 보고 잠시 얼어붙었다.  
4—  
군함도에서 우리는 4번 구역에 있었다.  
그리고 6—  
다온이가 죽은 날짜.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민서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이상하게 이게 그냥 우연 같지 않아.”  
민서는 말없이 나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예전 군함도에서 우리가  
'무섭지 않다'는 신호처럼 주고받던 그 손짓 그대로였다.

“406번— 다음 분 들어오세요.”  
드디어 내 차례였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밖까지 닿을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작은 방과 책상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앉은 검은 양복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서류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름.”  
“…윤하입니다.”  
“출생 연도.”  
나는 멈칫했다.  
군함도에 끌려간 후, 우리는 정확한 생년월일도 잊었다.  
문서도, 국적도, 기록도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정확하지 않지만, 경술년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펜끝이 멈췄다.  
그러더니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어딘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당신, 군함도 출신입니까.”

그 말이 공기를 찢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네.”

남자의 손이 가볍게 책상 아래로 미끄러졌다.

마치 무언가를 신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계했다.

“기다렸다고요?”

그는 끄덕였다.

“Square State 306은 단순한 취업처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는 말을 멈추고 단정하게 문장을 뱉었다.

“군함도 생존자 중 진실을 증언할 ‘상태가 되는 사람’을 선별하는 곳입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 문을 봤다.

잠겨 있었다.

“왜… ‘상태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남자는 미소도 감정도 없이 말했다.

“증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다시 움직일 힘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를 내밀었다.

“윤하 씨.

당신은 그 중 한 명일 가능성성이 있습니다.”

나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안에는 단 세 문장만 적혀 있었다.

- 군함도에서의 생존 경위

- 목격자 존재 여부

- 일본어 능숙 여부

마지막 항목에서 나는 숨이 걸렸다.

일본어.

내게 주어진 언어였지만,

동시에 내가 빼앗긴 언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일본어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만족.

기대.

그리고 계산.

“좋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일본어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익숙한 군인의 익양.

명령조.

잡아 끌던 손.

울음.

비명.

철 냄새.

나는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그는 물었다.

「聞こえるか?」 (들리나?)

나는 천천히 다시 말할 수밖에 없었다.

「聞こえる。全部。」

(들린다. 전부.)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은—”

그러는 순간.

쿵!!!

문이 세계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

민서였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내가 처음 본 표정이었다.

두려움.

그리고 경고.

“윤하—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검증 중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날 보고 말했다.

“그 사람…

Square State 306 소속 아니야.”

숨이 멎었다.

“그 사람…

일본 정부 쪽 사관 팀이야.

증언자를 제거하는 쪽.”

남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책상 아래 버튼을 눌렀다.  
경보음이 울렸다.  
5장  
민서는 내 손을 잡았다.  
“도망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검은 정장.  
무표정.  
가까워지는 발걸음.  
민서는 나를 끌며 속삭였다.  
“너 아직 모르지?  
너만 모르는 사실이 있어.”  
나는 숨이 가빴다.  
“뭐…?”  
민서는 나를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으로 밀어 넣으며 말했다.  
“윤하—  
너는 그냥 생존자가 아니야.”  
나는 멈춰졌다.  
민서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말했다.  
“다온이가 죽기 전…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  
그게 너야.”  
세계가 흔들렸다.  
계단 아래에서 쿵쿵 울리는 발소리.  
민서는 외쳤다.  
“달려!!!  
네가 기억해야 해.  
너만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로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뛰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동안 발끝이 미끄러질 듯 흔들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서 누군가의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쿵 — 쿵 — 쿵 —  
그 소리는 군함도 굴착장에서 들리던 쇠망치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잔인했다.  
내 폐는 타들어 갔고, 숨은 목에서 걸렸다.  
“멈춰!!!”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이의 이름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이상,  
멈출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계단 끝에 이르렀을 때, 철문이 보였다.  
출구였다.  
나는 힘껏 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그 순간—  
“動くな!!! (움직이지 마!!!)”  
총성 같은 외침.  
내 몸은 반사적으로 굳었다.  
몸을 돌리자,  
계단 입구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단단한 한국어로 말했다.  
“윤하 씨.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해…?  
당신들은—  
우릴 또 이용하려는 거잖아.”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막으려 합니다.”  
“…뭘?”  
그는 천천히 말했다.  
“기록을 조작하려는 세력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조작…?”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경계가 아닌, 항복과도 같은 손짓이었다.  
“Square State 306 내부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기록하려는 자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죽이려는 자들.”  
그 말은 너무 거대했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꿈처럼 들렸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 말 듣지 마.”  
민서였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내 팔을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 인간들은 자기 방식대로 역사를 남기려는 거야.  
우릴 도구로 쓰는 거지.”

남자가 말했다.

“우린 도구가 아니라—  
증인이 필요합니다.”

민서:

“거짓의 증인.”

남자:

“왜 우리가 거짓이라고 단정합니까?”

민서의 손이 떨렸다.

“…왜냐면—

내가 봤으니까.”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남자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사라졌다.

“…당신이었군요.

민서 씨.”

민서는 이빨을 꽉 깨물며 말했다.

“그래.

나도 군함도 생존자였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너한테 말하면…

너도 다시 끌려갈까 봐.”

그녀는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강하고, 무너지고, 동시에 애달픈 얼굴.

“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

언어도, 가족도, 이름도…

그런데—”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네 증언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남자가 낮게 말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윤하 씨.”

그는 한 발 앞으로 걸어왔다.

“우리를 믿고 공식 기록에 참여할지—”

민서는 한 발 내 앞으로 섰다.

“아니면 나와 함께 진짜 진실을 찾을지.”

바람이 지나갔다.  
도시는 아무것도 모른 듯 평온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군함도 굴착기보다 더 큰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